

‘제2 경도’ 공들인 고흥·신안 섬 개발 ‘좌초’

진지도, 1천억대 투자협약 기업 사업포기 ‘없던 일’
투자선도지구 잇단 탈락 악재...임자도도 유아무야

전남도가 1조원대 투자가 진행중인 여수 경도에 이은 핵심 개발 대상으로 꼽은 고흥과 신안 섬 개발사업이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탈락 등 악재에다 투자협약 맺은 기업도 발을 빼면서 전남도가 야심차게 지켜온 섬 개발 사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 서·중부권 해안 섬 우선개발 후보지로 고흥과 신안 섬 개발사업지를 1·2순위로 확정했다.

당시 후보지 심사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과 전남에 투자 중인 미래에셋, 대명리조트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신안·완도·고흥·영광·무안·보성 등 6개 군이 제출한 9곳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

1순위로 선정된 고흥과 신안 섬 개발사업지 대부분이 균유지로 토지매입 등 사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과역면 진지도 일원에 휴양과 자연, 스포츠업종을 유지, 사계절 가족 해양휴양 리조트 건설을 구상했다. 이 지역은 개발예정지 58만㎡ 중

94%가 균유지이며, 토지가는 ㎡당 1만 5,000원 가량이다.

2순위로 신안 임자도지구는 지도-임자간 연륙교 개통 등 양호한 접근성과 저렴한 땅값, 남향의 해수욕장 배치 등 향후 개발이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안군은 임자도 일원에 휴양, 미술체험, 자연레포츠업종 등을 유지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우선개발 대상지 선정 2년이다 되도록 두 지역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남 관광레져분야 사상 최대 규모인 경도 투자유치의 동력을 상대적으로 더딘 서·중부권 개발로 이어간다는 전남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흥 진지도는 같은 해 6월(주)한섬피엔디가 1,100억원을 투자해 ‘휴게라이프(Hygge Life)’ 스타일의 복합휴양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섬피엔디는 1단계로 2018년까지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2단계로 2020년까지 휘게 라운지 등 숙박과 편의시설, 3단계로 2024년까지 코र्ट야드(별장)빌리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었다.

한섬피엔디는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달 초 고흥군에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들은 개발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정부 투자선도지구의 연이은 탈락 등 사업성에 불을 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진지도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발 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대상에서 탈락했고, 지난 5월 지구 지정에 재도전했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을 들여왔던 기업이 중단 의사를 전달하면서 진지도 개발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 임자도의 경우도 부동산 투자 박람회 등 대외 홍보에 나섰지만, 입질하는 기업이 전무해 개발사업이 유아무야 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남도 안팎에서는 “전남지사 재임 당시 섬 개발에 역점을 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있었다면 제2 경도로 꼽았던 두 지구 개발이 물거품 됐겠느냐”는 불편한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근산 기자



공공비축미수매 시작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지동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직원이 비수매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역 R&D 예산 확대

송갑석 “5년 연속 꼴찌 수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전남의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5년 연속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전남은 52건 사업에 총 314억 원만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조 4,856억 원 중 광주 0.79%, 전남은 0.48%에 불과한 것으로 5년간 연속 최하위권이다.

과거 정부 R&D 예산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5년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전체 예산 대비 경상도권 25.7% (1조 6,675억 원), 충청도권 17.5% (1조 1,341억 원)로 나타났으며, 전라도권은 1,75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2.7%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 R&D 특수가 들어섰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확대가 지속됐다.

광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에 대비 3% (50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 중심 되는 신산업 기술 발전이 중요한데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focus

- 김영록 지사 취임 100일 ▶4면
- 생체의료산업 동남아 진출 ▶7면
- 영광 'e-모빌리티' 개막 ▶12면

생산·소비·고용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광주 경제 ‘출구가 안 보인다’

광주지역 생산·소비·고용 등 경제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8월 중 광주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 감소로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됐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수출 규모 및 취업자 감소 등 비제조업 분야의 부진도 이어졌다.

업종별 각종 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와 트레일러, 전자 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지난해 8월보다 7.6%가 하락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2.1% 떨어

졌다. 수출도 10.9%나 줄었다.

특히 건설부분의 경우 건축허가면적이나 착공면적 모두 지난해 8월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 떨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1.8%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0.7% 상승했다.

전남지역 경기는 제조업의 생산·수출 등 지표 상승으로 호전됐다.

제조업 생산은 운송장비와 코크스·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8월보다 1.4% 상승했다. 같은 달 수출

은 ▲석유제품(48.3%) ▲화학공업제품(16.3%)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소비와 고용 등은 감소했다. 8월 중 전남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고 취업자 수도 2.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아파트도 1,494가구로 전월대비 391가구 증가했다.

전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

이재호 “쌀 시장 불안시 과감한 대책”

정부가 최근 폭등하고 있는 ‘쌀값’을 두고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10일 이재호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쌀 수급량 조절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장관은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떨어진 쌀값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정부가 30만톤 이상을 추가로 사들이기 때문이나”며 “직불금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수급을 조정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제9회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

고(故) 김대중(전) 대통령의 애민·애국정신과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남매일이 2010년 처음 마련한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는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나라사랑 의미를 크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매일과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9회 김대중 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에 사·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회개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 목 - 용서와 사랑 -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라사랑 - 대통령이 꿈꾸는 평화	- 아름다운 대한민국 - 너와 나의 아름다운 우정 - 희망의 무지개	- 평화와 번영의 나무 - 줄거운 삶 - 한반도 정세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 평화와 번영의 나무 - 줄거운 삶 - 한반도 정세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원고작성	5장 내외	7장 내외	10장 내외

▶ 접수기간 2018년 10월 10일 ~ 11월 23일 (11월 23일자 소인, e-mail 유효)

▶ 접수방법 e-mail 접수 : peace20090818@daum.net
우편 및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전남매일 (3F) 김대중정신계승글짓기 담당자 양문의처 : 062) 720-1011, 1017

▶ 시상자발표 2018년 12월 7일 본사 홈페이지 (www.jndn.com) 및 해당학교에 통보

▶ 시상식 2018년 12월 중 (추후 공지)

주최 : M 전남매일 김대중평화센터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협찬 : 보광건설(주) 보광종합건설(주) 골드종합건설(주)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합니다